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이재열**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진했으며, 특히 가사분담과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내 재생산노동의 수교변화 등에 따른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매우 미비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개인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재생산노동과 생산노동간의 연관성,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내 여성의 변화 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건사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행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이 1991년도에 수집한 '제2차 여성취업실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횡단면자료를 중심으로는 로짓분석을, 취업과 비취업간의 전환에 대해서는 전환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콕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전반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코호트, 가족형성의 주기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은 고용의 지속성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사노동과 육아 책임의 대부분을 여성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가족내 재생산과 노동시장내 생산노동간에 상호교환관계 (trade-off)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성의 취업주기는 개인의 인적 특성과 가족형성기의 특징 이외에 전반적인 노동시장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하층 저학력 여성의 전환과정은 신경체학적 거점이, 고학력 여성의 비취업으로의 강한 회귀현상은 신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어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림과학원의 단기연구과제 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다. 연구조교로서 이 연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준 한림대 사회학과 유영희 석사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 서울대 사회학과.

이 할 사항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형성주기와 연관된 여성들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방법, 예를 들면 다양한 탁아 및 보육시설의 설치, 차별적 고용관행의 폐지, 유연한 시간근무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파트타임제의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1. 서론

현대여성의 사회적인 참여는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참여는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것은 서구사회에서 경험적으로 보여 온 현상이며,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발견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혼여성노동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진했으며, 이들의 활용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공급원을 찾으려는 체계적인 노력도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그 이유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이들이 가족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사노동 전담자였기 때문이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여성의 생산노동 참여가 가족내 재생산노동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정책적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생산노동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면서, 또한 남녀간에 임금과 고용 및 승진의 차별이 가장 강한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한편으로는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는 상황에까지 와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방대한 여성유휴노동력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처럼 장기적이고도 심각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일치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의 취업률의 저조로, 질적인 측면에서는 취업시의 남녀간 격리(job segregation)와 남녀간 차별(discrimination)에 따른 취업조건 열악성으로 드러난다.

최근 전반적인 노동력부족에 직면하여 여성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고용할당제 같은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고용의 문제는 전반적인 사회구조, 가족내 재생산노동의 특성,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력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그 정책적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개인사자료(longitudinal data)를 활용하여 기혼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간의 상호작용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1)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친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코호트별로 살펴보고, 2) 나이,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중단적인 취업경력의 변화유형을 파악하며, 3) 개인의 고용과 비고용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려 했다. 연구의 방법으로 여성의 취업과 비취업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로짓분석과 더불어 전체 대상인구를 하위범주로 나누어 생애표 분석(life table analysis)을 행하고, 연속적 시간의 사건사분석모형(Cox model)을 통해 전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

2.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이동을 설명하는 이론틀

1) 기존연구의 문제점

기혼여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우선 여성노동시장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추이를 통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글이 주목되는데, 어수봉(1991), 신영수(1991), 배무기와 조우현(1991)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모두 60년대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력의 수급구조 변화추이를 산업별, 직종별, 연령계급별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근 제조업 생산직 여성노동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전제하면서, 이같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해 줄 주요 공급원으로서 기혼 혹은 중장년 여성노동력층의 규모와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들 연구는 경제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계량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주요 결론도 노동력의 여성화, 고령화 추이에 대한 통계적 입증(어수봉, 1991), 기혼여성에 대한 수요 증대와 여성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일에 대한 태도변화(배무기·조우현, 1991), 2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중장년 인구계급의 광범위한 유휴노동력 존재확인 등으로 기혼여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대책

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통계적, 계량적 연구들은 여성노동의 특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에 기초한 다기보다는 주로 여성노동력 부족의 해소라는 정책적 관심하에 여성노동력의 추세를 단순 점검하는 데 머물러 있다. 따라서 노동력 부족의 원인인 임금 및 노동조건,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유희노동력으로서 기혼여성 동원에 관심이 있을 뿐 재생산 노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저임금 해소는 그다지 문제 삼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양승주(1993)는 한국여성개발원이 1992년에 실시한 '제2차 여성취업실태 조사' 자료를 기초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을 검토하였다. 그는 여기서 6세 미만 자녀의 유무를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첫번째 변수로 꼽고 있다. 6세 미만의 자녀양육 부담은 그렇지 않은 여성과 비교할 때 17.5% 정도의 취업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다음으로는 기혼여성의 연령, 가구소득, 노동시장 참여경력 및 취업업종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하였다.

한편 김태홍은 여성노동의 수요공급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즉, 여성 내부의 취업구조도 혼인여부와 학력수준에 따라 취업업종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혼여성은 무급 가족종사자나 자영업주로서 농수산업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미혼여성은 대부분이 사무직 임금근로자이며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 또한 기혼여성일수록 영세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는 이같은 특성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기혼여성 취업증가 추세에 따른 대안으로는 시간제취업 여성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보장의 실현과 가사 및 육아 부담의 경감을 위한 사회와 기업의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최문경의 여성노동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직업적 성취는 85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취업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여성노동의 유동성을 고용지위에 기반하여 살펴보았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하여 직업이동을 효과적으로 보여준 것이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겠으나, 남성에게는 직업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언급되지 않는 결혼이나 자녀의 출산이 왜 여성에게서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내적 메커니즘 분석이 필요하다(Choi, 1994).¹⁾

이것은 재생산과 생산영역이 연결되는 지점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생산

영역의 경우 각각의 생애주기별로 여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하는 시간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노동의 분업이 적절히 되지 않고 여성에게만 책임지워질 때 여성은 생산영역에서 일시적이거나 이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산영역에서 보자면, 결혼 정년제나 산전산후 휴가의 실질적인 박탈 등 여성차별적인 관행이 지속되는 회사인 경우 여성은 직업의 이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직장탁아소가 잘 되어 있다거나 작업 시간의 유연성이 큰 경우는 여성이 생산영역에 계속 머무르는 데 유리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경제학적 접근법이나 여성학적 접근에 경도되어 여성노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남성과 비교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결혼과 출산 등의 가족형성의 단계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Rossi, 1985).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재생산노동 혹은 가사노동의 측면과 연관지어 보면 여성의 생애주기에는 최종학교의 졸업, 결혼, 첫 자녀의 출산, 막내 자녀의 출산, 육아의 종료 등이 포함될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볼 때, 최종학교를 졸업한 미혼의 여성은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를 경험하나, 이 기간은 아직 본격적인 안정적 직업을 확보하기 이전

1) 이 논문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다만, 같은 연도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1986년에 소규모로 조사된 덜 체계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구별된다. 이 논문의 문제는 첫째, 공식-비공식 구분의 문제를 언급하면 비공식 부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분법적인 공식-비공식의 구분이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생애주기에서 공식과 비공식 부문을 넘나드는 것으로 제시하는 데에서 자칫 공식 부문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이는 이분법적인 구분 자체가 여성의 생애적인 변화를 보여주기에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여진다. 둘째, 인적자본론에 대한 이해를 지적할 수 있다. 최문경은 교육수준과 경력, 휴직기간을 생산성에 관련된 인적자본론적 변수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신호게임이나 통계적 차별 등의 설명은 여성에게 책임지워진 재생산 영역이 생산성과는 부의 효과를 가짐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설명에 대한 중요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직업이동을 설명하는 것은 재생산과 생산영역의 연결을 통해 여성문제를 분석하고자 한 시도인데, 이것을 통해 여성의 저생산성을 주장한 인적자본론을 비판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셋째, 그는 생애주기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네 시기의 구분과 이에 따른 여성의 직업이동이 상관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성의 직업이동과 생애주기는 상관관계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애주기 자체가 직업이동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남성에게는 직업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언급되지 않는 결혼이나 자녀의 출산이 왜 여성에게서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의 탐색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Osterman, 1980). 반면에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시기의 노동시장참여율은 낮은 반면 결혼 이전과 출산 및 육아완료 이후 시기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의 연령대별 노동시장참여율은 M자형 곡선을 그린다.

남성과 비교해 여성에게 두드러지는 독특한 생애주기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은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설명하는 데는 신고전주의적인 노동경제학의 입장과 노동시장의 사회학적 관점이 대비된다. 신고전주의적 노동경제학에서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측면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사회학적 관점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측면과 구조적 요인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는다.²⁾

2) 신고전주의적 노동경제학이론

신고전학파의 노동력공급이론은 크게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탐색이론(search theory)과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으로 나눌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탐색은 두 가지 이유에서 발생한다. 첫째, 동일한 직종 내에서도 노동자와 직무 모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차이들이 존재한다. 둘째, 이러한 차이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어서 측정하거나 기술하기 힘들다.

노동경제학의 노동력 공급이론에 따르면 일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의중임금(意中賃金; reservation wage)으로 결정된다.³⁾ 이때 의중임금이란 노동자가 노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여가의 가치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노동력의 공급곡선에서는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제임금이 의중임금보다 높아야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Hamermesh and Rees, 1984: 8). 이 이론에 따르면, 의중임금이 낮은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떤 사람의 의중임금이 낮다는 것은 이 사람이 여가에 투자하는 시간을 가치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2) 여성노동시장론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로는 방하남(1996)을 참조할 것.

3) 의중임금의 개념은 Mincer(1963)와 Gronou(1974)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일중독자(workaholic)는 의중임금이 낮으며, 다양한 취미와 특기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의중임금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가구의 구성원이 많은 상태에서 여성의 의중임금은 가장을 비롯한 가구원들의 소득, 가족에 대한 부양비용 등에 영향받게 될 것이다. 남편이나 기타 가구원의 수입이 낮거나, 남편의 경제활동 능력이 상실된 경우⁴⁾ 가족부양의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여성의 의중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노동시장참여율은 높아지게 된다. 낮은 계층의 여성들이 높은 노동시장참여율을 보이는 이유도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어린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가치가 급속히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의 의중임금은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기취업자도 높아진 의중임금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취업을 덜 원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육아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의중임금도 낮아지게 되어 여성의 취업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여성의 의중임금은 대체적인 수단의 확보여부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육아를 대신해 줄 시부모의 존재나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탁아시설의 존재는 자녀양육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의중임금을 낮추어주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게 된다.

그러나 경제학적 노동공급행위이론의 가장 큰 단점은 행위자가 아무 제한 없이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이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직업이 주당 최소 40시간의 노동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거나 하는 양자택일을 요구한다.

한편 신고전파 노동경제학에 따르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받는 실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인적자본이다. 인적자본이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인적 특성을 의미한다.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교육이나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 등은 인적자본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Becker, 1991; Mincer, 1974).⁵⁾ 인적자본이론의 요지는 노동자들이 미래에 실현될 좀더 높은 수익을 위해 현재의

4) 여기에는 남편의 질병이나 장애와 같은 신체적인 이유 이외에도 별거나 사별, 이혼 등과 같은 결혼상태의 변화가 포함된다.

5) 그 외에도 건강에 대한 투자, 직장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위한 지리적 이동에 드는 비용 등은 모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다.

소득을 희생하면서 기술 및 지식의 습득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받는 실제임금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견한다. 왜냐하면 '시장임금은 경제학적 생산성과 관련된 개인변수들, 즉 교육(지능), 훈련, 경험, 그리고 임금노동에 대한 선호도 등 소위 인적자본에 따라 주로 결정되고, 의증임금은 가사와 자녀를 돌보는 데 써야 하는 시간의 양과 그 부여된 가치로 결정되므로 주로 결혼 및 출산 여부에 따라서 변화를 보이기 때문이다(Heckman, 1974, 방하남, 1996a: 6에서 재인용).

그러나 여성노동력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평균적으로 남성노동력에 비해 낮다. 이는 교육의 효과가 남녀간에 다르게 만드는 사회제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직업에서는 남성의 취업만을 허용하고, 낮은 지위와 소득을 제공하는 직업에는 여성만이 배치되는 성별분리가 광범하게 진행되어 있다면,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 심한 취업난을 겪게 되어 실제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이 낮아지고, 낮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쉽게 취업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사회학의 구조주의적 노동시장이론과 밀접히 연관지어 해석할 부분이다(Sørensen, 1979).

이러한 맥락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정치 경제적인 변화와 법률적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률의 증대가 기대만큼 높지 않으며, 동시에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의 평균임금의 60% 선에 머문다는 사실을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 왔다(England, 1982).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은 주로 차별적인 관행에 근거하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대경제학자들 중에는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의 개념을 중심으로 노동력 수요측의 요구와 공급자간의 교환관계로 여성노동력에 대한 차별을 설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통계적 차별이론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생산과 연관된 특성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물론 통계적 차별이론에서도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군의 학자들은 교육수준과 생산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변수들의 신뢰도 변이에 대해 주목한다. 반면 스펜스는 교육수준과 같이 성취 가능하면서도 관찰 가능한 속성을 신호(signal)로 정의하고, 신호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신호비용이라 정의하여 시장내에서 신호와 고용, 그리고 신호와 임금간의 교환이 궁극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통계적 차별이론은 노동시장내의 성차별이 이루어지는 '합리적' 근거로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고용주는 생산성과 이직가능성에 관한 남녀간의 평균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고용주는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과 이직가능성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셋째, 따라서 경쟁적인 시장내에서 고용주는 인지된 평균적인 남녀간 차이가 정확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행동한다. 다시 말하면 제한된 정보를 지닌 고용주는 여성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낮고 이직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직무에 대한 예측된 헌신도(expected job commitment)가 낮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통해 생산성의 증대를 꾀한다는 주장이다(Tam, 1993).

통계적 차별이론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고용주들의 편견이나 사회적 관행 때문만이 아니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밝혔다는데서 이론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여성의 예측된 헌신도가 낮은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달리 말하면, 결혼이나 출산 이후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하는 사회적 관행하에서는 여성의 이직가능성이 높아지며, 결혼과 출산 후 경제활동에 계속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육아와 가사노동이 분담되지 않는 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적인 참여는 제한받게 된다는 구조적인 요인을 간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결국 기업의 생산성이 자본과 결합한 노동력의 기술수준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때 현재의 구조하에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차별을 통해 기업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통계적 차별이론의 실제적인 함의는 매우 현실안주적인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3) 구조주의적 노동시장의 사회학

인적자본이론과 탐색이론이 주로 공급측면을 강조하였다면, 다양한 구조주의적 노동시장이론들은 수요측면의 특징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주의적 접근법들이 모두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신고전경제학에 대한 구조주의적 비판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의 흐름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석사슬이론, 맑시스트이론, 다변량구조주의이론 등이 그것이다.

첫째, 수리사회학자나 소수의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으로 공석사슬이론(vacancy chain theory)이 있다(White, 1971; Sørensen, 1977; 1979; Konda and

Stewman, 1980). 이 이론에서 구조란 그 기원에서 내생적 과정보다 외생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된 위계적으로 순서지워진 직책들(slots)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이 직책들간에 개인이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한 규칙이 존재하며, 이 과정은 경험세계에서 발견하는 바와 같이 스토카스틱(stochastic)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써로우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임금경쟁(wage competition)보다는 직무경쟁(job competition)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직무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가 그에 걸맞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직무를 점유하기 위한 지원자의 행렬(queue)이 형성되고, 직무간, 행렬간에는 직접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Thurow, 1975).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시장은 남성의 노동시장과 격리되어 독특한 행렬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여성들이 취득하는 교육은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취업가능성과 임금을 높이는 기능을 하기보다는 단지 훈련가능성이 있다는 자격증을 보증하는 체계에 불과하다. 이 입장에서 보면 구조란 명백히 관찰 가능한 하나의 변수로 조작화하기는 힘들지만, 남녀간의 동질적인 시장을 가정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해 심각한 반론을 제기하는 데는 충분하다.

특히 여성들간에도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 기혼자와 미혼자간에는 서로 상이한 행렬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취업률도 하위범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점에서 공식사슬이론은 대졸여성들의 취업난과 저학력 여성들의 높은 취업률 사이의 불일치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맑시스트이론에서는 생산관계가 노동시장의 결과를 낳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주장을 편다. 특히 맑스주의적 상대적 과잉인구론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이 생긴 것은 노동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속성인 성, 연령, 인종 등도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본 자체에 내재하는 이윤추구의 속성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산업예비군은 자본축적에 따라 노동력을 유인하고 밀어내며, 경기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 노동력의 흡수가 달라지는데, 상대적 과잉인구의 압력으로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며, 여성노동력이 바로 그러한 성격을 지닌다는 주장이다(윤진호, 1994; 조순경, 1990).

고전적 상대적 과잉인구론에 비하면 최근의 논의들은 과잉인구 내부구성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자본은 최대한의 이윤확보를 위

해 직무구조를 계층화시키고, 노동력의 자연적·사회적 차이를 기초로 이질화시킴으로써 분할지배를 피하기 때문에(Gordon, Edwards, and Reich, 1975) 노동시장의 분단화와 더불어 노동력의 자연스러운 차이 중 성이 가장 중요한 차별기준이 된다고 한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는 노동시장은 일차부문과 이차부문으로 이중구조화되어 있는데, 일차적인 노동시장은 임금, 고용조건, 승진기회 등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반면, 이차적 노동시장이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정한 취업, 승진기회의 부족 등의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 그런데 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이차부문에 집중하게 된다고 진단한다(Beck et al., 1978).

여성이 과잉인구의 대다수를 점하게 되는 배경에는 전체 과잉인구 중 단순 미숙련 생산직종에 취업이 가능한 노동력이 여성으로 한정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단순 미숙련 노동에 여성을 고용하는 것이 남성을 고용하는 것보다 이윤극대화에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이며, 둘째 노동력수요자와 공급자의 뿌리깊은 성별분업관념 때문이라고 한다(조순경, 1990: 254). 상대적 과잉인구 중 미숙련 생산직에 취업이 가능한 인구규모는 일차적으로 성에 따라 제한받으며, 동시에 혼인상태 여부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받는다. 즉 여성인구 중에도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혼여성이나 일부 기혼여성만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주의적 이론의 대부분은 모두 단위구조에 대한 연구(the positional level analysis)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이론적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노동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는 위치를 가능한 한 구체화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구조적 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매우 실증적인 노력으로 연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효과를 ‘색출’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그런 효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파생되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개인의 취업에 선행하는 기회 및 보상의 분포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나 동시에 개인의 경력을 통해 구조의 효과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4) 생애주기와 여성 취업력의 동태적 분석

근대경제학적 이론이 공급자 중심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해 있다면, 구조주의적 노동시장론은 수요측면의 산업구조, 성별분리를 강요하는 경제구조, 사회적 관행, 그리고 계급관계 등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이론 모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양태를 분석하는 데는 일면적이다.

반면에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여성의 취업력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양태의 변화를 추적하는 전략을 택하고자 한다.

(1) 생애주기

생애주기(life course)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1) 공통의 개념적·경험적 분석틀 안에서 개인들의 생활사와 성장의 궤적(trajectories)을 설명하는 것과 2) 이러한 개인적 사건과 궤적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Mayer and Tuma, 1990). 생애주기에 대한 연구는 문제제기의 실제적 내용뿐 아니라 사회현상의 미시적·거시적 수준간의 분리를 당연시해 온 전통적 연구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생애주기 패러다임은 개인의 생애주기를 거시적 사회구조와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 이해한다. 그러나 만일 개인의 생애주기가 기존의 사회구조의 '산물에 불과'하다면 개인생활의 다양한 편차는 무시될 것이다. 따라서 '표준적' 생애주기로부터 이탈하는 다양한 개인적 편차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여성의 생애주기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한편으로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로부터 개인의 삶을 규정해주는(trickle down) 요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개개인의 생애의 다양성은 반대로 기존의 사회적 제도와 관행을 밑으로부터 바꾸어 가는(percolate up)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생애주기 관점의 핵심적 명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사회구조는 상호 연관된 다양한 지속요인들의 혼합체이므로 어느 한 시점에서 잘라 본 개인들간의 관계라는 규정을 거부한다(Blau, 1964; Mayer 1986). 예를 들면 사회구조는 개인의 생애라는 다양한 길이와 굵기를 가진 실들이 서로 섞이고 꼬여서 만든 로프와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위는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사회구조 안에서 개인의 생애는 개인적 행동뿐 아니라 조직적 과정, 제도적이고 역사적인 힘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생애는 개인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태지워진 궤적 (socially patterned trajectory) 이다.

3) 생애구조에 대한 연구는 다차원적이고 다시점적인 분석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분석의 차원이 코호트, 지역, 조직 등의 수준에서 나뉠 수 있다면, 시간상의 시점은 개인이나 조직의 출생, 성장, 사망 등의 주요 사건을 기준으로 나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생애주기적 관점을 방법론적으로 가장 잘 지지해 주는 것은 취업력에 대한 사건사적 분석이다. 이미 생애주기적 관점을 통한 여성노동에 대한 연구는 급속히 축적되기 시작하고 있다(Long and Jones, 1980; Phang, 1994; Rosenfeld, 1980).

(2) 여성의 취업력에 대한 동태적·사건사적 분석

사건사분석은 연속적인 관찰기간중에 발생하는 대상의 질적으로 상이한 상태로 연속적인 변화과정을 자료로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이다(Allison, 1984; Blossfeld et al, 1989; Kalbfleisch and Prentice, 1980; Tuma and Hannan, 1984; Lee, 1993; Phang, 1994; Yee, 1993). 사건사분석은 한 시점에서 변수들간 관계만을 추정하는 정태적인 연구에 비하면 여성들의 결혼, 출산, 이혼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정이라는 사회제도와 생애과정의 인구학적 변화들이 여성들의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데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 특히 전반적인 산업구조 변화와 여성 노동시장참여율의 증대, 부분참여 대신 완전참여율이 증대되는 현상 등은 생애과정에 대한 동태적 연구의 필요성을 더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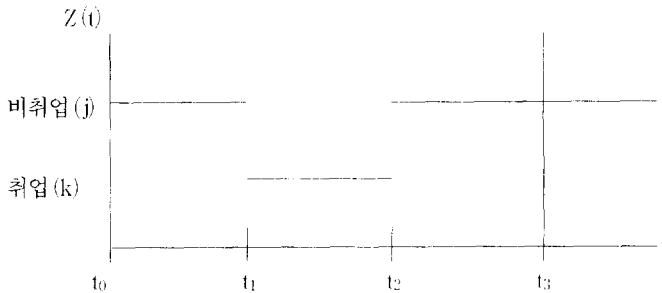
사건사분석의 필요성은 이론적 문제의식과 분석방법론간의 괴리에 대한 반성에서 도출될 수 있다. 내재적으로 동태적 속성을 가진 사회현상을 정태적 방법으로 분석하면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대간 계급이동모형이나 세대내 지위획득모형 등은 모두 동태적인 현상을 정태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예에 해당된다. 횡단면자료분석에서는 한 시점에서 관찰한 상태가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분석에 임한다. 그러나 변화가 심한 자료에서는 한 시점의 단면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표본의 잘못된 대표성 때문에 잘못

된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6) 반면에 사건사분석은 질적으로 상이한 상태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점에서의 전환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3. 분석방법과 자료

1) 분석의 모형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건사분석을 통해 여성의 취업과 비취업간 전환을 확률로 전환해 측정한다. 사건사분석에서 한 여성은 시점 t 에서 $Z(t)$ 인 상태공간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었다. <그림1>에서 이 경우의 여성은 t_0 에서 t_1 까지는 비취업상태(j)에 있다가, t_1 에서 취업(k)으로 전환하였고, 다시 t_2 에서 비취업으로 전환하여, 현재 시점인 t_3 까지 비취업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때 t_3 에서는 관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측관찰중단(right censoring)의 사례에 해당된다. 사건사분석에서 관심의 대상은 상태의 전환이다. 즉, 두 시점 t 와 $t+\Delta t$ 를 비교하여 이들의 상태가 각각 j 와 k 로 서로 다른 상태에 있는 경우 전환이 일어났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 측정의 단위는 1년으로 한다.



<그림1> 어느 여성의 가상적인 취업력 자료

6)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횡단면자료분석의 문제점은 동일표본반복연구(panel study)나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상태공간에서 전환은 전환확률로 측정한다. 시점 t 에서 j 상태에 있던 대상이 한 단위구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 k 상태로 바뀌는 확률은 $q_{jk}(t, t + \Delta t)$ 로 표시된다. 그래서 t 시점의 상태에 대한 조건부확률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q_{jk}(t, t+1) = \Pr[Z(t+1) = k | Z(t) = j]$$

한편 시점 t 에서 상태 j 로부터 k 상태로 전환율을 $r_{jk}(t)$ 로 표시한다면, 이는 $q_{jk}(t, t + \Delta t)$ 의 미분값에 해당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egin{aligned} r_{jk}(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q_{jk}(t, t + \Delta t)}{\Delta t} \\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 T < t + \Delta t, Z(T) = k | T \leq t, Z(t) = j]}{\Delta t} \end{aligned}$$

카플란-마이어의 생존함수는 관찰중단을 포함하는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hat{S}(t) = \prod_{j, t_j \leq t} (n_j - d_j) / n_j$$

로 표현되고, 여기서 t_j 는 j 번째 관찰구간에서 사건의 발생 혹은 관찰중단을, 그리고 n_j 는 이 구간의 관찰사례수를, d_j 는 t_j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한 사례수를 의미한다.

한편, 한 시점에서 개인이 사건을 경험할 순간적 확률은 재해율(hazard rate)로 요약되며, 다음의 공식에 따른다.

$$\begin{aligned} h(t) &= \frac{t와 t + \Delta t 사이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Delta t)(시간 t 이후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 \\ &= h_0(t) e^{\beta_1 x_1 + \dots + \beta_k x_k} \end{aligned}$$

콕스회귀분석은 β_1, \dots, β_k 의 계수를 추정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해율은 기본재해율(baseline hazard function), 즉 $h_0(t)$ 와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기본재해율은 어떤 형태든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고 추정되지는 않는다.⁷⁾

7) 이것이 콕스회귀분석과 여타 사건사 분석방법들의 차이점이다. 여타의 방법들은 사건발생의 시간 의존성(time dependency)에 대한 가정에 근거해 재해율을 추정한다. 그러나 콕스회귀분석은 시간의존성에 대한 함수를 가정하지 않는 대신, 가장 현실적합성이 높은 시간의존성의 함수를 계산한 후, 이에 비례하는 여타 변수들의 영향력을 계산해준다(Allison, 1984).

특정 변수값인 x_1, \dots, x_k 등의 조건하에서 기본재해율에 대한 실제 재해율의 비율인 $h(t)/h_0(t)$ 를 상대적 위험(relative risk)이라고 정의하므로, $\beta_1 x_1 + \dots + \beta_k x_k$ 는 상대적 위험의 자연대수가 된다. 이것은 모든 x 가 0이라고 가정할 때의 가상적인 관찰값과 비교한 x_1, \dots, x_k 의 값을 가지는 관찰값의 상대적인 위험의 로그값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본재해율과 비교하기보다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 유의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연령이 1살 많아지면 취업을 그만둘 상대적인 위험이 어느 정도나 증가하는가를 측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달리 말하면, i 번째의 독립변수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들을 일정하게 고정시킨 후 i 번째 변수의 변화에 따른 상대적 위험의 변화를 보는 것이다. 즉,

$$\frac{e^{\beta_1 x_1 + \dots + \beta_i (x_i + 1) + \dots + \beta_k x_k}}{e^{\beta_1 x_1 + \dots + \beta_i x_i + \dots + \beta_k x_k}} = e^{\beta_i}$$

가 되는데, x_i 에서의 변화인 Δx_i 의 상대적 위험은 $e^{\beta_i \Delta x_i}$ 로 표현된다.

한편 이러한 종속변수들을 좌항에 놓고 앞에 언급한 다양한 독립변수들을 우항에 놓아 직업전환과 여성의 생애주기간 관계를 살피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 변수들의 효과를 측정할 것이다.

2) 자료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실시한 91년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85년에 이은 2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로 1차 때에 비해 취업력에 대한 형식을 수정하여 여성의 취업력을 더 완벽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취업,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 등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 특성 그리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취업력 변화과정 등 여성의 취업실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어, 여성노동 및 인력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의 조사대상은 먼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을 조사한 뒤 그 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지

역은 전국으로 하되 섬지역과 특수지역 등은 제외했다. 표본추출 단위는 가구이며, 확률표집법을 통하여 선정한 조사구당 40개 가구를 난수표를 사용하여 표본을 선정했다. 조사규모는 3,200가구 3,849명이며, 조사도구는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조사표이다. 조사표는 1장 가구질문표, 2장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장 경제활동 상태, 4장 취업력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1992년 3월 27일부터 4월 22일까지 27일간 실시되었다. 총조사 대상가구 3,200가구 중 조사완료된 가구는 3,128가구로 97.8%의 완료율을 보인다. 기혼여성은 2,711명이 조사되었고, 미혼여성은 371명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분석은 농촌여성을 제외하고 시부에 거주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므로 대부분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어 전반적인 여성들의 취업양상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자료의 구체적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표본의 특성으로서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가구의 특성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취업자의 취업구조,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취업에 대한 만족도 및 태도, 가사 및 자녀양육 문제 등 여성취업자의 실태 등이 실려 있다. 또 여성실업자의 현황과 특성,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실태와 특성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도 조사대상자 중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의 15세 이후 현재까지 연령 증가에 따라 노동시장 참가와 참가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출생코호트별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다.

4. 자료의 분석과 해석

자료의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번째는 1991년을 기준으로 한 횡단면분석자료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결정요인과, 취업여성의 이직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로짓분석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두번째는 여성들의 전체 취업력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사분석으로서 중요한 생애사건들에 대한 분석과 취업주기를 단위로 하는 분석으로 나뉜다. 즉, 분석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횡단면자료분석(로짓분석)

-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
- 2) 취업여성의 이직성향을 결정하는 요인

2. 사건사분석(콕스회귀분석)

- 1) 여성의 최초취업으로의 전환율에 관한 분석
- 2) 여성의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으로의 전환율에 관한 분석
- 3) 여성의 결혼으로의 전환율에 관한 분석
- 4) 고용에서 비고용으로의 전환율 분석
- 5) 비고용에서 고용으로의 전환율 분석

1)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이직성향 결정요인

(1)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91년 현재 시무에 거주하는 여성의 표본은 모두 2,389명이었다. 그 중에 취업한 여성은 모두 1,039명으로서 전체의 43.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취업여성 1,039명 중 약 32.4%에 해당하는 337명은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

각 변수에 대한 설명과 기본적인 분포는 <표1>과 같다. 이 변수들은 응답여성의 연령, 인적자본의 특성, 생애주기상의 위치, 가족내 경제수준과 건강상의 특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이다(<표2> 참조). 로짓분석의 회귀계수는 +인 경우는 취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이면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먼저 여성의 생애주기상의 위치가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연령이 높아지면 경제활동참여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의 책임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저조해진다.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생애주기에 속한 여성들은 미혼의 여성에 비해, 그리고 두 생애주기를 모두 통과한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가족내 재생산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혼이나 사별, 별거 등으로 남편이 없는 경우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율은 매우 높아진다. 또한 남편이 건강상, 혹은 기타의 이유로 직장을 갖지

〈표1〉 횡단면자료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의 정의와 평균(혹은 비율)

연령	응답자의 현재 연령	36.4세
6세 미만 자녀	6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1, 아니면 0	.30
stage3	결혼 후 출산완료 이전이면 1, 아니면 0	.07
stage4	결혼 후이면서 출산완료 후면 1, 아니면 0	.49
일에 대한 태도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하고자 하는 태도로 약하면 1, 강하면 5인 척도	2.88점
고졸	고졸이면 1, 아니면 0	.42
대졸	전문대졸 이상이면 1, 아니면 0	.16
가구소득	가구원이 버는 총 소득의 로그값	4.49
본인소득	본인이 버는 소득의 로그값	3.58
이혼, 사별, 별거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남편이 없는 경우 1, 아니면 0	.06
남편의 무능력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1, 아니면 0	.12
본인의 질병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1, 아니면 0	.30
향후출산의사	향후 출산의사 있으면 1, 아니면 0	.13
직장내 차별	직장내 임금 및 승진상의 차별이 있으면 1, 없으면 0	.47
성폭력 경험	직장내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	.47
출산휴가	산전 및 산후휴가를 실시하면 1, 아니면 0	.25

못한 경우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여성들은 남성 대신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유 때문에 강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여성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에 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시장참여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살펴볼 사항은 여성들의 인적자본과 태도이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보다는 고졸이, 그리고 고졸보다는 대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저조하다. 반면에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⁸⁾

8) 그러나 가구소득의 효과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자료의 특성상 해당 여성이 취업하기 직전의 가구소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상태의 가구 총소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소득에는 해당여성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원의 소득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그 효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의

〈표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로짓 회귀분석

	모수추정치	표준오차	z	P > z
연령	.0087045	0068195	-1.276	0.202
6세미만자녀	.5339537	1195735	4.465	0.000
stage3	.051573	.226275	-0.22	0.820
stage4	.2741865	.13829	1.983	0.047
일에대한태도	.1288736	0452116	2.850	0.004
학력 고졸	.6417717	.119438	5.373	0.000
내졸이상	.9420769	1681906	5.601	0.000
가구소득	.5747874	.089074	6.453	0.000
이혼, 사별, 별거	1.415041	2277725	6.213	0.000
남편의 무능력	.6193099	1518791	4.078	0.000
본인의 질병	-.74847	1181599	-6.334	0.000
상수항	2.655852	.5215774	5.092	0.000

Number of obs = 2004

 $\chi^2(11) = 189.32$ Prob > $\chi^2 = 0.0000$

Log Likelihood = -1253.4064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여성들의 일에 대한 태도가 경제활동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족 내, 특히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의사가 분명한 여성의 경우에는 실제로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사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교육수준에 반비례하는 반면, 가족내 경제적인 곤란도와는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반적인 취업구조가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어렵게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과 연관되어 있다. 일례를 들면, 1970년부터 1990년까지 20여 년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노동력은 357만명에서 673만명으로 315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변화분할분석(shift-share analysis)의 결과에 따르면 이 중 경제성장효과에 인한 것이 84.5%이고, 직종내의 여성비율변화효과는 8.8%이며, 성장과 직종내 여성비율변화의 상호작용효과가 6.6%로서 남녀간의 불평등한 성별직종분리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⁹⁾ 다만 이 기간 동안 전체노동력 중 여성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8%의 증

취업성향은 본인을 제외한 가구소득과는 반비례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9) 이 시기 동안의 남녀별·직종별 취업자수의 변화와 그에 대한 변화분할분석의 결과에 대해서는

가에 그쳤으며, 그 중 직종의 구조변화에 따른 효과가 -5.1%인 반면 직종내 여성 비율증가 효과는 3.3%이고,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4.8%로서 그나마 특정 직종내에서 여성노동력 비율증가가 눈에 띄는데, 이는 주로 사무직과 생산직의 여성노동력 비율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¹⁰⁾

이와 같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낮은 이유는 전체 직업구조에서 차지하는 고학력여성의 차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발적 참여보다는 경제적 재생산이 어려운 하층 계층을 중심으로, 그리고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학력 여성층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이고 강제적인 요인에 따른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이직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부분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매우 불안정한 취업을 하고 있다. 전체 취업여성 중 3분의 1 가량이 심각하게 현 직장에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여성의 이직성향은 학력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보다는 고졸이, 고졸보다는 대졸 취업자의 이직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학력자일수록 취업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를 낮게 만드는 직종구조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은 서로 상이한 효과를 미친다. 가구소득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여성 자신의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이직성향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불완전한 취업, 즉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이직성향을 결정짓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여성들의 주관적인 직업만족도는 이직성향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직장내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 직장내 차별유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 등을 고려한 결과 이직성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통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달리 말하면 직장내 차별유무나 성폭력 경험 등이 직장만족도를 구성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직장만족도를 통제하면 이들 변수의 영향력은 매우 미약해짐을 의미한다.

<부표1>부터 <부표4>까지를 참조할 것.

10) 이에 대해서는 <부표4>의 여성취업비율의 변화에 대한 직종별분해의 내용을 참조할 것.

〈표3〉 취업 여성의 이직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로짓 회귀분석

	모수추정치	표준오차	z	P > z
연령	-.056145	.0138972	4.040	0.000
출산의사	.4670659	.1877391	2.488	0.013
일에 대한 태도	.0926294	.0938162	0.987	0.323
학 고졸	.6505742	.2503847	2.598	0.009
력 대졸이상	.8423254	.4449082	1.893	0.058
가구소득	.0472123	.1989191	0.237	0.812
직업만족도	-1.216916	.1468324	-8.288	0.000
개인소득	-.6494573	.1467607	-4.425	0.000
직장내차별	.0914553	1.123307	0.081	0.935
성폭력경험	.0232586	1.130299	0.021	0.984
출산유급휴가	-.3846906	.2361148	-1.629	0.103
상수항	6.624715	1.247487	5.310	0.000

Number of obs = 600

 $\chi^2(11) = 166.42$ Prob > $\chi^2 = 0.0000$

Log Likelihood = -290.61348

생애주기에서 출산 및 육아는 여성의 이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향후 출산의사를 가진 여성의 경우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연관해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직장에서 출산을 전후한 휴가를 제도화시켜 놓은 경우 여성의 이직성향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점이다.

2) 중요 생애사건으로 전환율

앞의 논의는 횡단면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현 시점의 취업과 비취업, 그리고 취업자의 이직성향 등에 대한 논의는 가능했지만, 취업 경력에 대한 역동적인 분석은 불가능했다. 이 절에서는 중요한 생애적 사건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생애사건으로는 교육과 노동시장 진입, 그리고 결혼과 자녀출산 등이다.

전체 도시거주 여성응답자 2,397명 중 17%에 해당되는 398명은 관찰시점인 현재까지 취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측관찰중단(right-censoring) 사례에 해당된

다. 반면에 전체 응답자의 83%에 해당되는 1,999명은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경험하였다. 이들 중 약 73%는 만 20세 이전에 최초의 노동시장 진입을 경험하였고, 19%는 21세부터 30세 사이에, 그리고 나머지 8%는 30세 이후에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였다.

각 여성이 경험하는 최초 노동시장 진입의 경험은 최대 1번에 국한한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은 1,297명이 된다. 이중 중요한 독립변수에서 무응답자를 제외한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초취업으로 이행을 결정하는 요인, 즉 누가 빨리 최초의 직업을 갖게 되는가에 대한 분석은 세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60년대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최초취업으로 이행이 늦었음을 알 수 있다. 콕스회귀분석의 결과를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대적 재해율로 다시 계산해 본 결과 60년대 이후 코호트에 대비한 50년대 코호트의 최초 취업으로 이행률은 72%, 40년대 코호트의 상대적 이행확률은 44%, 30년대 이전 코호트의 확률은 30%로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취업기회가 최근으로 올수록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표4〉 중요 생애사건으로의 전환율의 분석(콕스회귀분석)

	최초취업		졸업 후 취업		결혼	
	모수추정치	P > z	모수추정치	P > z	모수추정치	P > z
50년대생	-0.320	0.000	-0.402	0.000	0.079	0.159
40년대생	-0.815	0.000	-0.803	0.000	0.104	0.138
30년대생	-1.188	0.000	-1.262	0.000	0.785	0.000
중졸	0.040	0.585	0.195	0.011	-0.321	0.000
고졸	-0.258	0.000	0.402	0.000	-0.684	0.000
대졸	-0.798	0.000	0.492	0.000	1.059	0.000
아버지교육	-0.096	0.136	-0.088	0.172	-0.166	0.010
fedmis	0.168	0.038	0.149	0.071	0.025	0.752
LL	-14049.2		-13037.8		-14116.1	
Chi2	285.05		391.76		518.88	
Prob > χ^2	0		0		0	
사례수	2395		2245		2395	

반면에 학력별로 나누어 보면, 고학력자로 갈수록 최초 직업으로 이행이 늦어짐을 알 수 있다. 국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과 대비한 고졸자의 최초취업으로 이행확률은 77%인 반면, 대졸자의 이행확률은 45%에 불과하다. 이는 고학력자로 갈수록 최초취업 이전의 대기시간이 길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학력자의 취업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재학연한이 그만큼 더 소요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일한 독립변수를 가지고 두번째로는 최종학교 졸업후 취업까지 소요시간을 대상으로 콕스회귀분석을 행했다.

그 결과 출생코호트의 효과는 첫번째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학력의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국졸자와 대비한 중졸자의 최초취업으로 이행확률은 약 1.2배이고, 고졸자는 1.5, 대졸자는 1.6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학력이 높아지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야 취업을 하게 되지만, 학교를 마친 시점부터 취업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고학력자의 대기시간이 더 짧다는 의미가 된다.

한편 초혼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 2,397명 중 12%에 해당하는 364명은 아직 미혼인 반면 88%에 해당하는 2,695명은 초혼을 경험하였다. 초혼 경험자 중 18%는 20세 미만의 나이에 결혼하였고 81%는 20세에서 30세 사이에, 그리고 1% 미만만이 30세 이후에 결혼하였다.

최초의 결혼상태로 이행확률은 취업과 반대로 노년층에서 높고, 고학력자에서 낮게 나타난다. 60년대 이후 출생 코호트와 비교한 50년대 코호트의 초혼으로 이행확률은 1.1배, 40년대 출생 코호트는 1.1배, 30년대 코호트는 2.2배로 나타나서 특히 30년대와 그 이전 코호트 사이의 결혼연령에서 급격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국졸자와 비교한 중졸자의 초혼으로 이행확률은 .7배, 고졸자는 .5배, 대졸자는 .3배로서 학력이 높아질수록 초혼연령이 유의미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해진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결혼과 노동시장 진입은 출생코호트와 학력집단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코호트의 여성들일수록 최초의 직업을 찾기 전까지 대기시간을 짧게 가지게 되었다. 반면에 노년 코호트의 경우에는 취업 전까지 대기시간은 길었던 반면에 초혼에 이르기

까지 대기시간은 짧게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은 노동시장 진입과 초혼을 모두 늦추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높은 교육을 받는 집단은 학교를 마치고 좀더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3) 취업상태와 비취업상태간 전환율

이 연구에서 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것은 취업-비취업간의 전환율이다. 전환율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의 단위는 한 상태에 머무는 기간, 혹은 주기(spell)로 정의한다. 한 주기에서 머무는 기간, 즉 취업주기에서 비취업주기로 이행하기 전까지 대기한 기간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표5>는 표본의 취업, 비취업주기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 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401명이 누적적으로 경험한 주기는 취업주기가 2,765회, 비취업주기가 3,823회로서 총 6,588회의 주기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개인당 평균 1.15개의 취업주기와 1.59개의 비취업주기, 그리고 총 2.74개의 주기를 경험한 것이 된다. 각 개인이 복수의 주기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전환율을 계산할 때에는 동일한 개인이 경험한 주기들에 대해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였다(time varying covariates의 문제).

<부록그림1>은 취업-비취업간의 전환과정의 카플란-마이어 생존함수를 학력별, 코호트별로 나누어 보여준다.

<표5> 각 응답자가 경험한 취업 및 비취업 주기(spell)의 분포

주기횟수	취업주기			비취업주기		
	사례수	%	누적%	사례수	%	누적%
0	400	16.66	16.66	43	1.79	1.79
1	1349	56.18	72.84	1118	46.56	48.35
2	562	23.41	96.25	1049	43.69	92.04
3	72	3.00	99.25	165	6.87	98.92
4	15	0.62	99.88	20	0.83	99.75
5	2	0.08	99.96	4	0.17	99.92
6	1	0.04	100.00	2	0.08	100.00
계(응답자)	2401			2401		
계(주기수)	2765			3823		

(1) 취업상태에서 비취업상태로 전환율

〈표6〉은 여성노동력 중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전환율에 대한 콕스회귀분석에 따른 계수추정치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계수들은 모두 기준이 되는 재해율에 대한 상대적 전환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1보다 큰 값을 가지면 상대적으로 전환율이 높음을, 달리 말하면 취업 지속기간이 짧아짐을 의미하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전환율이 기본전환율보다 낮아짐을, 즉 취업의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과 학력, 코호트만을 고려한 모형1에서는 연령은 취업의 지속기간을 길게 하는 것으로, 학력은 지속기간을 짧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졸의 전

〈표6〉 취업상태에서 비취업상태로 상대적 전환율 분석(콕스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H Ratio	$P > z $	H Ratio	$P > z $	H Ratio	$P > z $
당시연령	0.991	0.021	1.032	0.000	1.016	0.011
중졸	1.194	0.024	1.126	0.133	1.184	0.036
고졸	1.327	0.000	1.222	0.010	1.341	0.000
대졸이상	1.070	0.488	0.846	0.100	1.059	0.610
50년대생	1.046	0.464	0.982	0.769	1.192	0.004
40년대생	0.782	0.003	0.731	0.000	1.167	0.064
30년대생	0.557	0.000	0.499	0.000	1.119	0.299
생애주기2			0.411	0.000	0.340	0.000
생애주기3			0.599	0.000	0.638	0.000
생애주기4			0.375	0.000	0.353	0.000
아버지교육					1.051	0.490
fedmis					0.766	0.003
과거취업력					0.868	0.000
LL	11930.2		11870.0		11401.8	
χ^2	148.9		269.3		1205.7	
Prob > χ^2	0.000		0.000		0.000	
사례수	2763		2763		2763	

각주: 생애주기1= 결혼 이전; 생애주기2= 결혼 후 자녀출산 이전; 생애주기3= 첫 자녀 출산 후 마지막 자녀의 출산 이전; 생애주기4=마지막 자녀출산 이후; fedmis=아버지 교육이 무응답인 경우

환율이 높아서 고졸자의 취업지속기간이 유난히 짧아지고 있다. 반면에 코호트별로는 노년층의 코호트에서 상대적 전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6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와 비교할 때 40년대 코호트의 상대적 전환율은 78%, 30년대 코호트의 상대적 전환율은 56%에 불과해서 노년층의 경우 일단 취업을 했으면 오랜 기간 취업을 지속해 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모형2는 생애주기를 4단계로 나누어 1단계를 결혼 이전, 2단계를 결혼 후 자녀출산 이전, 3단계를 첫 자녀출산 후 마지막 자녀의 출산 이전, 4단계를 마지막 자녀의 출산 이후로 정의하였을 때 각 생애주기별 상대적 전환율을 보여준다. 이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결혼 이전의 취업주기가 가장 높은 전환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결혼은 취업을 종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생애사건임을 보여준다. 한편 상대적인 전환율이 2단계나 4단계보다는 3단계에서 높아서 자녀양육기간 동안의 취업이 가장 불안정해짐을 알 수 있다.

모형3에서는 가족의 문화적 배경으로서 아버지의 교육과 과거 취업경력을 부가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이 분석에 따르면 아버지의 교육은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대신 과거의 취업경험은 전환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일수록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취업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비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전환율

같은 방법으로 비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전환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7>에 나타나 있다. 연령과 학력, 그리고 출생코호트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 1에 따르면 대졸자와 고졸 이하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 대졸자의 경우 상대적 전환율이 낮아서 대졸자들은 일단 비취업상태에 놓이면 지속기간이 오히려 저학력자에 비해 길어진다. 출생코호트별로는 6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에 대비한 상대적 전환율이 50년대 코호트는 70%, 40년대 코호트는 48%, 30년대 이전 코호트는 30%로서 나이가 많은 코호트일수록 전환율이 체계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년층일수록 일단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 다시 복귀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모형2에서는 생애주기를 부가적으로 통제했다. 그 결과 연령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더라도 연령이 높아지면 비취업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반면에 결혼과 자녀의 출산 이

후, 특히 마지막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는 전환율이 결혼 전의 2.8배에 달해 육아의 의무가 끝난 후에는 다시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가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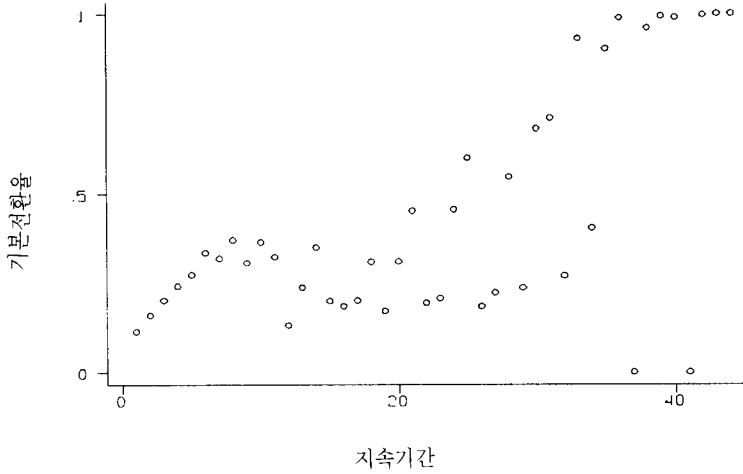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모형3에서 살펴본 과거의 취업경력은 상대적인 전환율을 높이고 있다. 즉, 과거의 취업경험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취업과 비취업간 전환율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취업과 비취업주기 모두 시간의존성이 존재한다. 콕스모델에서 시간의존성, 즉 기본전환율은 특정한 형태를 띠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선형이나 비선형관계를 가정하는 회귀분석과 그러한 관계를 가정하지 않는 분산분석의 차이와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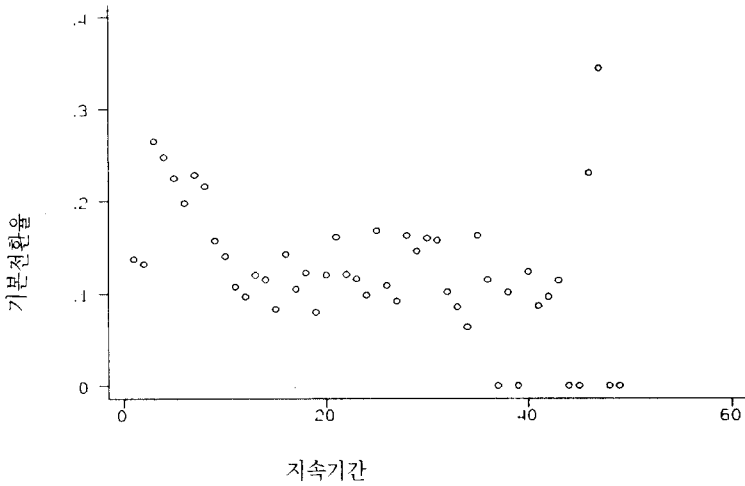
〈표7〉 비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의 상대적 전환율의 분석(콕스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H Ratio	P> z	H Ratio	P> z	H Ratio	P> z
당시연령	1.006	0.081	0.980	0.000	0.977	0.000
중졸	1.056	0.414	1.055	0.426	1.062	0.370
고졸	1.118	0.072	1.147	0.028	1.181	0.009
대졸이상	0.709	0.000	0.714	0.000	0.752	0.000
50년대생	0.702	0.000	0.694	0.000	0.698	0.000
40년대생	0.480	0.000	0.461	0.000	0.461	0.000
30년대생	0.300	0.000	0.286	0.000	0.289	0.000
생애주기2			0.914	0.142	0.916	0.150
생애주기3			1.358	0.004	1.355	0.004
생애주기4			2.769	0.000	2.778	0.000
아버지교육					0.951	0.382
fedmis					1.123	0.107
과거취업력					1.042	0.004
LL	17867.2		-17838.1		-17833.1	
χ^2	335.0		393.1		403.2	
Prob > χ^2	0.000		0.000		0.000	
사례수	3821		3821		3821	

각주: 생애주기1 = 결혼 이전; 생애주기2 = 결혼후 자녀출산이전; 생애주기3 = 첫 자녀출산 후 마지막 자녀의 출산 이전; 생애주기4 = 마지막 자녀출산 이후; fedmis = 아버지 교육이 무응답인 경우



〈그림2〉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기본전환율(시간의존성: 〈표6〉의 모형3 기준)



〈그림3〉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기본전환율(시간의존성: 〈표7〉의 모형3 기준)

분석결과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기본전환율은 지속기간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그림2〉 참조),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기본전환율은 시간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를 띤다(〈그림3〉 참조).

시간의존성의 형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전환은 취업지속기간이 길어지면 그 전환율이 높아지게 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적인 시간의존성이 존재한다. 반면에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전환율은 부적인 시간의존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일단 취업을 한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을 그만두게 될 확률이 증가하게 되지만, 비취업상태로 머물게 되면, 다시 취업하기는 점차 힘들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번째로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이행과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은 상호 대칭적이다. 예를 들면, 연령의 증가는 취업상태에서 비취업으로 이행확률을 높여주지만,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확률은 낮추어준다. 나이가 들수록 취업지속기간이 짧아지면서 비취업에 머무는 기간은 길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학력자는 취업지속기간이 짧아지면서 동시에 비취업 체류기간은 길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출생코호트별 분석에 따르면 노년세대로 갈수록 취업의 지속기간이 짧아지며, 반대로 비취업 체류기간은 길어진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과거의 취업경력이다. 과거 취업경력이 많을수록 현재의 취업기간이 길어지며, 비취업상태에 있더라도 취업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문헌섭렵을 통해 현재까지 국내외의 경험적 연구성과들을 점검한 결과 기존의 연구들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존의 연구들은 1차자료가 아닌 2차자료에 의존하거나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시계열적 변화상을 포착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시계열적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도 주로 패널데이터에 의존함으로써 전체구조의 변화를 제시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개별 노동력이동의 경로(trajecory)를 보여주는 데는 실패하였다.

반면에 이 연구는 생애주기에 따른 취업경로를 분석함으로써 구조적인 변화과정

에서 개인의 취업사가 어떠한 형태로 추적되는지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전반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나이, 코호트별 차이, 가족형성의 중요한 주기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결혼과 출산은 고용의 지속성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아직도 가사노동과 육아 책임의 대부분을 여성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가족내 재생산과 노동시장내 생산노동은 상호교환관계(trade-off)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노동력의 취업-비취업간의 전환율이 고용과 관련한 여성의 인적 자본변수(학력과 경력) 뿐 아니라 가족내 요인(가족형성의 주기, 가족내 재생산의 문제 등)과 전반적인 사회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코호트효과 등에 영향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과거 취업경력이 취업-비취업간 전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전환율의 시간의존성을 통계하더라도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가족형성 주기와 연관된 여성들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취업이 좀더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사회적 부조체제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기혼여성의 취업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탁아 및 보육시설의 설치, 결혼시의 퇴직을 전제로 한 차별적인 고용관행의 철폐 등이 요구되며, 아울러 여성들이 가족내 재생산과 생산노동을 겸할 수 있도록 유연한 시간근무를 가능케 하는 파트타임제의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취업주기는 개인적 특성과 가족형성기의 특징 이외에 전반적인 노동시장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는 근대경제학적 전통과 구조적 제약을 강조하는 신구조주의적 노동시장론 모두의 주장이 단편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보임금의 개념을 통해 취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주로 하층의 저학력 여성에 잘 적용되는 개념이다. 반면에 출생 코호트별 취업주기간 전환과정이나, 고학력 여성에서 나타나는 비취업으로 강한 회귀 경향등은 신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취업력과 노동시장참여는 생애주기를 통해 다양하게 표출되며, 그 요지는 생애주기를 통한 이해에 있다고 하겠다. 구조의 효과가 여성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한편으로 결정지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의 취업력의 일관된 특징들이 다시 노동시장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 분

석은 구조와 개인간 상호작용을 구체화시키는 전략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이 분석에서는 취업과 비취업의 두가지 상대간의 전환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좀더 심층적인 분석은 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는 차후의 분석을 통해 보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나탈리 소콜로프(1990), 이효재 역, 《여성노동시장이론》, 이화여대 출판부.
- 방하남(1996a),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 개인적-구조적 결정요인들에 관한 이론적 개관”,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편, 《한국사회학평론》 4.
- _____(1996b),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 전이과정의 동태적 분석”, 《한국사회학》 30(봄호).
- 배무기·조우현(1991), “여성노동력 고용구조와 상하이동”.
- 신영수(1991), 《여성노동시장의 중장기 전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양승주(199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 분석”, 《여성연구》 40.
- 어수봉(1991),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 윤진호(1994), 《한국의 불완전 노동자》, 인하대 출판부.
- 조순경(1990), “한국 여성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시론: 생산직 여성노동력 부족현상을 중심으로”, 송호근 편, 《노동과 불평등》, 나남.
- 한국여성개발원(1992),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 Allison, P. D. (1984), *Event History Analysis: Regression for Longitudinal Event Data*, Beverly Hills: Sage.
- Beck, E. M., P. M. Horan, and C. M. Tolbert(1978), “Stratification in a Dual Economy: A Sectoral Model of Earnings Determi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704-20.
- Becker, Gary(1971),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lau, P.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John Wiley & Sons.
- Blossfeld, H. -P., A. Hamerle and K. U. Mayer(1989), *Event History Analysis: Statistical Theory and Application in the Social Sciences*, Hillsdale, N. J.: Erlbaum.
- Choi, Moonkyung(1994), “Lifetime Occupational Achievement of Female Workers: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미간행).
- England, P. (1982), “The Failure of Human Capital Theory to Explain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s* 17: 358-370.
- Gordon, D. M., R. Edwards, and M. Reich(1975), *Segmented Work, Divided*

- Workers: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Labor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onau, Reuben(1974), "The Intrafamily Allocation of Time: The Value of the Housewives' Time", *American Economic Review* 63: 634-651.
- Hamermesh, Daniel S. and Albert Rees(1984), *The Economics of Work and Pay*, Cambridge: Harper and Row.
- Kalbfleisch, J.D., and R.L. Prentice(1980), *The Statistical Analysis of Failure Time Dat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onda, S.L. and S. Stewman(1980), "An Opportunity Demand Model and Markovian Labor Supply Model: Comparative Tests in Organiz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2): 276-301
- Lee, Kun(1993), "Employment Processes and Dual Labor Market Structures",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미간행).
- Long, J.E., and E. B. Jones(1980), "Labor Force Entry and Exit by Married Women: A Longitudinal Analysi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2: 1-6
- Mayer, K.U., and N.B. Tuma(1990), *Event History Analysis in Life Course Research*,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Mayer, K.U.(1986), "Structural Constraints on the Life Course", *Human Development* 29(3).
- Mincer, Jacob(1963), "Market Prices, Opportunity Costs, and Income Effects", in Carl Christ ed., *Measurement in Economic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Osterman, P.(1980), *Getting Started: The Youth Labor Market*, Cambridge, MA: MIT Press.
- Phang, Hanam(1994), "A Dynamic Study of Young Women's Labor Market Transitions over the Early Life Course: Cohort Trends, Racial Differences, and Determinan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미간행).
- Rosenfeld, R.A.(1980), "Race and Sex Differences in Career Dynamic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583-609
- Rossi, Alice S.(1985), *Gender and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Publishing Co.
- Sørensen, Aage B.(1974), "A Model for Occupational Care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 44-57.

- _____ (1977), "The Structure of Inequality and the Process of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965-978.
- _____ (1979), "A Model and a Metric for the Analysis of the Intragenerational Status Attainment Proc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2): 361-384.
- _____ (1983), "Sociological Research on the Labor Market: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Work and Organizations* 10(3): 262-287.
- Tam, Tony(1993), "Discrimination by Expected Job Commitment: The Missing Link in the Gender Wage Gap", Paper presented at the 1993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Miami Beach, Florida(미간행).
- Thurow, L. C. (1975), *Generating Inequality: Mechanisms of Distribution in the U.S. Economy*, New York: Basic Books.
- Treiman, D.J. (1985), "The Work Histories of Women and Men: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Find Out", in A. S. Rossi (ed.), *Gender and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1985.
- Tuma, N.B. and M.T. Hannan(1984), *Social Dynamics: Models and Methods*. Orlando, FL: Academic Press.
- White, H. (1971), *Chains of Opportunity: System Models of Mobility in Organiz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Yee, Jaeyel(1993), "The Formation and Reproduction of Self-Employment in a Developing Economy: An Analysis of Job-Shift Rates in Korean Urban Labor Market",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2.

〈부표1〉 성별 및 직종별 취업자수(1970-1990)

(단위: 천 명)

	1970			1990		
	계	남	여	계	남	여
1 전문관리직	462	377	85	1494	957	537
2 사무직	576	498	78	2237	1378	859
3 판매직	119	687	512	2617	1379	1238
4 서비스직	636	269	367	1995	767	1228
5 농림어업	4898	2823	2075	2597	1561	1036
6 생산운수	1974	1513	461	6074	4237	1837
총계	9745	6167	3578	17014	10279	6735

출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부표2〉 여성노동력 증가분의 분해(1970-1990)

항목	증가수	(비율)
전체 여성취업증가분	3157.0	(100.0%)
경제성장효과	2668.9	(84.5%)
여성비율변화효과	279.5	(8.8%)
상호작용분	208.5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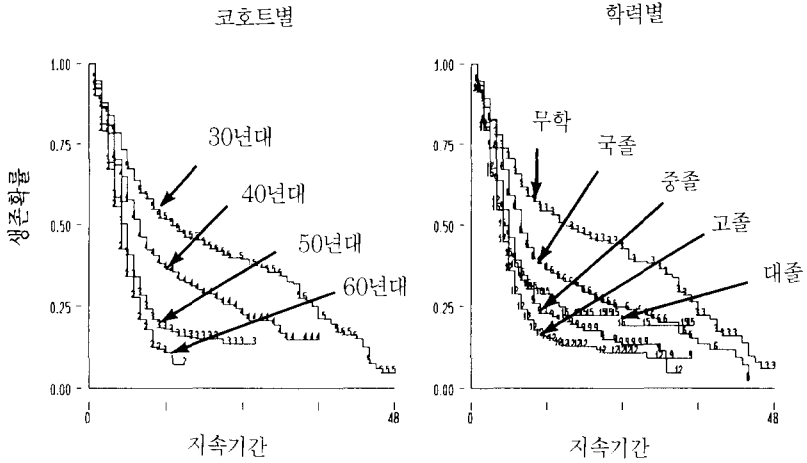
〈부표3〉 여성노동력의 구성비의 증가분의 분해(1970-1990)

항목	분해량
전체 여성구성비 증가	0.028
직종의 구조변화효과	0.051
직종내 여성비율변화효과	0.033
상호작용분	0.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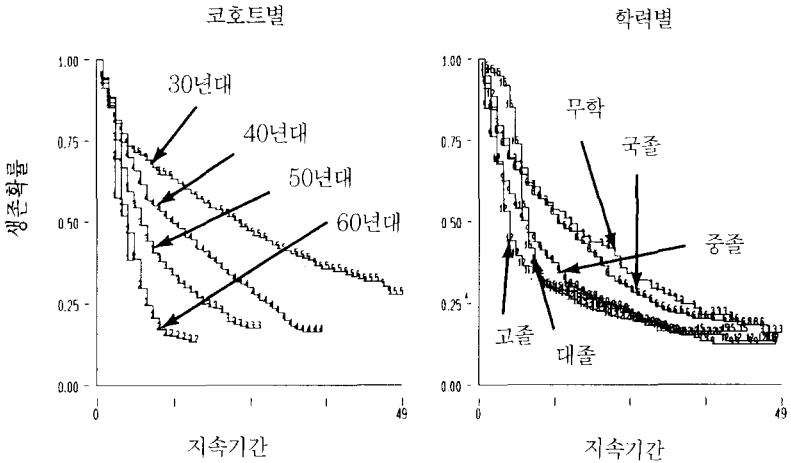
〈부표4〉 여성취업비율의 변화분의 직종별 분해(1970-1990)

직종	직종구조 변화	직종내 여성비율 변화	상호작용
전문관리직	0.0074	0.0083	0.0070
사무직	0.0098	0.0146	0.0179
판매직	0.0131	0.0056	0.0014
서비스직	0.0300	0.0025	0.0020
농림어업	-0.1482	-0.0124	0.0086
생산운수직	0.0360	0.0139	0.0106
합계	-0.0518	0.0327	0.0477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전환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전환



<부록그림1> 학력 및 코호트별로 본 취업-비취업간 전환의 카플란-마이어 생존함수

abstract

**A Dynamic Analysis of the Women's Labor Market Transition: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e and
Reproductive Labor**

Jaeyeol Yee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s well as the policy concern for wider utilization of married women, have continuously grown up. However, research efforts on the determinants of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courses and active entry into labor market, has been far behind the growing interest in this field. This study has conducted an event history analysis of women's labor market transition utilizing personal occupational history data colle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Women's Development in 1991. The analysis is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part introduces logit regression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exit. The second part employs Cox regression to see the variation of transition rate between employment and non-employment.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wide variation in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ccording to age, cohort, and family formation. Special note is needed for th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f marriage and child birth on labor market participation. The transition pattern of lower class women with less education fits well to the prediction of neo-classical economics; but the tendency of highly educated women's regression to non-employment reveals the strong influence of the unfavorable labor market structure, which can be better explained by the neo-structuralist perspective. There is a strong trade-off between productive and reproductive labor of women, which can only be corrected by strong policy

implementation, such as extended child care facilities, abolition of discriminatory employment practices, and expansion of flexible part time employment.